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첫 간담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정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격려하며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란 여성의 참여를

15명 참여 여성정책발전 의견 나누는 토론 시간 가져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등”

기반으로 지역정책을 성인지적 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사회,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양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년 연말기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으로는 전국 95개 지역, 전남 9개 지역이다.

구례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전준비를 위해 2020년 4월에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9월에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며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해 여성

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군민참여단은 군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의견 제시, 매분기 1회 정기 간담회 실시 등 군민 참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안전과 자녀 양육이 보장되고 일·가정의 양립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내 손으로 마을을 예술 마을로”

3개소 모집...개소당 2천만 원 지원

곡성군이 오는 4월 8일까지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예술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모집하고 있다.

예술마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경관을 특색 있게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개 마을 공동체를 모집해 각 2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골목길 타일벽화, 마을 쉼터, 디자인 표지석, 포토존 등 사업 목적과 마을 특색에 맞는 다양한 경관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예술마을사업에는 민간 단체나 주민자치회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 주도로 마을 경관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들이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민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 결과물에 대해 일부는 만족하더라도 일부는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반면 예술마을사업은 주민들이 협의한 결과대로 마을의 모습을 직접 꾸미기 때문에 의견이 100% 반영된다.

또한 주민들 간 의견을 나누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되살리고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이번 사업이 경관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기한인 4월 8일까지 곡성군 도시경제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곡성소식-고시공고란의 ‘곡성군 예술이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게시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관디자인팀(061-360-873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산불 예방 캠페인 추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통시장·관광지·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

담양군이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과 삼척, 강원 강릉과 동해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담양군 산림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여 명은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과



관광지 주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서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영농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 황룡강에 폭포 흐른다

‘황룡강 폭포’ 통수(通水) 기념식



장성 황룡강에 웅장한 인공폭포가 조성돼 화제다. 장성군은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황룡강 폭포’ 통수(通水) 기념식을 갖고 새

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을 알렸다.

황룡강 폭포가 조성된 곳은 기산리 안산돌 레길 하부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석탄 이기남과 송강 정철이 학문을 논했던 자리인 석송대와도 가깝다.

폭포의 높이는 10m로 건물 3층 높이다. 폭역시 20m에 달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상부에서부터 세 갈래로 나뉜 물줄기가 정량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폭포 하단부에는 관람 데크를 만들어 사진 촬영하기에 좋다. 또 동굴에 들어가면 폭포수 안쪽에서 뉘를 바라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시립예술단 신규 비상임 합창단원 22명 신규 위촉장 수여

나주시는 지난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립예술단 신규 비상임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서류와 실기·면접을 거쳐 선발된 비상임 단원은 부반주자 1명, 소프라노 8명, 알토 5명, 테너 3명, 베이스 5명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시립합창단은 상임 11명, 비상임 22명 총 33명으로 구성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나주시립예술단은 지난 2016년 민선 6기 나주시 문화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시립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합해 창단됐다. 현재 국악단 28명, 합창단 33명, 소년·소녀

합창단 37명 등 총 98명의 시립예술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시립예술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 간 99회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대면·비대면 공연을 개최해 감동과 환희,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찬균 나주시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립예술단 단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과 위로를 전해주는 문화행복도시 나주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